

당뇨병 · 우울증 동반환자 인지기능 저하 재촉 우울증 지표점수 높을수록 인지기능 감퇴 가속도

2형 당뇨병과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들의 경우 인지기능 감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학 의대의 마크 D. 설리번 박사 팀이 '미국 의사협회 저널 정신의학'(JAMA Psychiatry) 온라인판이 지난 8월 14일 게재한 논문이 그것이다.

우울증과 당뇨병은 고령자들에게서 가장 빈도높게 나타나는 증상들로 손꼽히고 있다. 성인 2형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최대 20% 정도가 우울증 주요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우울증과 당뇨병은 또 치매가 발생할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설리번 박사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우울증이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지만, 가정 큰 영향이 미치는 인지영역과 환자그룹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팀은 심장병 위험도가

높은 2,977명의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우울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40개월 동안 추적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우울증 지표점수가 높게 나타났던 그룹에서 인지기능 감퇴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관찰됐다. 다만 우울증이 인지기능 감퇴에 미친 영향이 심장병 발병 전력이나 혈당강하제, 고혈압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인슐린 제제 등의 복용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박사는 "치매야말로 당뇨병에 수반되는 합병증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상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공중보건을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제, 소아 · 청소년 당뇨 위험성 높여 발병률 낮은 편이지만 가능하면 대체약물 복용을

각종 행동장애 및 정서장애 증상과 관련해 이형성 정신질환 치료제들을 처방받아 복용했던 소아 · 청소년 환자들은 2형 당뇨병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망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정신질환 치료제들을 복용한 소아 · 청소년 환자들의 경우 약물복용 착수 후 1년 이내에 2형 당뇨병 발생률이 3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미국 밴더빌트대학 메디컬센터 웨인 A. 레이 교수팀은 '미국 의사협회 저널 정신의학'(JAMA Psychiatry) 온라인

판에 지난 8월 21일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레이 교수는 "소아 · 청소년 환자들이 정신질환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서장애, 주의력 결핍 또는 행동장애 증상에 이형성 정신질환 치료제들을 복용할 때는 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 교수팀은 1996~2007년 기간 동안 6~24세 소아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던 의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 분석작업 과정에서 연구팀은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정서장애 등의 증상에 대처하기 위해

이형성 정신질환 치료제를 처방 받았던 그룹과 다른 약물들을 처방받았던 그룹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정신질환 치료제들을 복용한 6~17세 그룹의 경우 약물복용 착수 후 1년 이내에 2형 당뇨병 발생률이 3배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게다가 2형 당뇨병 발병률은 복용량과 비례해서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2형 당뇨병 발병률은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최소 1년 동안은 지속적인 상관관계를 내보였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에 미루어 볼 때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서 2형 당뇨병 발생률 자체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 교수는 “소아·청소년층에서 2형 당뇨병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일단 발생했다면 증증을 떨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형성 정신질환 치료제 이외의 대체 약물을 복용토록 하고, 최소의 용량을 최단 기간 동안 복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10개국 항당뇨제 마켓 매년 9% 성장”

2012년 280억 달러...2022년에는 690억 달러 규모

주요 10개국의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 향후 10년간 145%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중국과 인도의 당뇨병 유병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크게 치솟을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서 주요 10개국은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인도 등이다. 영국의 국제적 컨설팅업체 글로벌데이터는 8월 20일 공개한 '2형 당뇨병 2022년 세계시장 전망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처럼 예상했다. 글로벌데이터는 주요 10개국의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 2012년 280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2년에는 69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해당기간 동안 이 시장이 연평균 9.4%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012~2022년 기간에도 2위 시장과 커다란 격차를 유지한 채 1위 시장의 지위를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10개국 시장총액을 보면 2012년 160억 달러에서 2022년 39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 가지 변수는 아시아 각국에서 2형 당뇨병 발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동의 1위 시장인 미국의 위상이 흔들

릴 수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들 가운데 71%가 아시아 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특히 어느덧 세계 최대 2형 당뇨병환자 발생 국가에 랭크된 인도의 환자수가 2012년 9,400만명에서 오는 2022년이면 1억8,2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단언했다. 2012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도의 당뇨병 진단환자 수가 매년 평균 9.2% 증가해 기타 9개국 진단환자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 되면서 세계 최대 당뇨병 환자 국가라는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라는 설명이다.

중국 또한 가까운 장래에 2형 당뇨병 발생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데이터는 예측했다. 2012년의 3,900만명에서 환자 수가 연평균 8.4% 늘어나 2022년에는 7,200만명 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다만 의료 분야의 개발이 미흡한 데다 제네릭 제품들의 마켓셰어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인도 및 중국이 전 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2022년 차지할 비중은 21% 수준에 머물 것으로 글로벌데이터는 내다봤다.

급성 췌장염 환자 당뇨병 진단률 40% 육박 5년 추적조사 결과 2형 당뇨병 발생률 2배 증가

췌장염 환자들의 경우 당뇨병 전조증상들이 나타나는 단계를 말하는 前 당뇨병 또는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상관성이 제시됐다. 즉, 급성 췌장염이 발생했던 환자들 가운데 퇴원 후 前 당뇨병 또는 2형 당뇨병을 새로 진단받은 비율이 40%에 육박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급성 췌장염 환자들은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 2형 당뇨병 발생률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미국 오클랜드대학 의대의 막심 S. 페트로프 박사팀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의 자매지인 '腸'(Gut) 온라인 판에 8월 8일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페트로프 박사팀은 24개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1,102명의 급성 췌장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퇴원 후 1개월 이상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건의 시험에 참여했던 462

명의 환자들에게서 前 당뇨병이 보고되어 약 16%의 발생률을 보였다. 아울러 20건의 시험에 참여한 936명의 환자들 중 23% 정도의 발생률을 나타냈다.

또한 10건의 시험에 참여한 359명의 환자들은 급성 췌장염 후 당뇨병이 발생해 인슐린으로 치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률은 15%였다. 당뇨병 발병률은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페트로프 박사팀은 췌장염 환자들 가운데 당뇨병이 발생한 비율이 40%에 육박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관관계가 시사된 사유와 관련해서는 췌장이 체내에서 소화를 돕는 효소들과 혈당 대사를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호르몬들을 생성시키게 되는데, 이곳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장기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저해되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했다.

릴리 · 질란드 파마 당뇨 · 비만藥 개발 협약 펩타이드 치료제 계열 신약개발 공동 진행키로

미국의 메이저 제약기업 일라이 릴리와 덴마크 제약기업 질란드 파마(Zealand Pharma)가 항당뇨제 및 비만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획기적인(first-in-class) 펩타이드 치료제 계열의 2형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의 약물설계 및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합의했음을 지난 8월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사는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소요될 비용 뿐 아니라 위험까지 부담하고 성과 또한 나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추후 협력 대상을 항당뇨제 및 비만 치료제 이외의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합의와

관련해 소상한 금전적 내역은 이날 양사가 공개하지 않았다.

질란드 파마의 다비드 솔로몬 회장은 "효능이 보다 우수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전력투구해 왔던 일라이 릴리와 협력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라이 릴리의 루스 지메노 항당뇨제 개발 부문 최고 학술 책임자는 "우리가 보유한 연구진이 혈당강하와 체중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새로운 펩타이드 호르몬 기반 치료제의 개발을 진행해 왔다"며 "질란드 파마와 협력연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초기단계의 연구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